

G20 D-2, 각국 정상들 속속 입국

오늘 말라위 대통령 시작으로 11일 방한 피크 “최초 동시다발적 정상회담…준비에 만전”

서울 G20 정상회의 참석차 9일부터 각국 정상들이 속속 도착한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정상은 초청국인 말라위의 빙구 와 무타리카 대통령으로서 9일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정상들로 공항 입국장이 가장 붐비는 날은 11일이 될 전망이다. 이날은 14개국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이에 앞서 비즈니스 서밋이 개막되는 날이기도 한 10일에도 12개국 정상 및 대표단이 도착할 예정이다.

주요국 정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가 10일, 중국과 일본, 독일이 11일 각

각 입국한다. 프랑스는 자국내 사정 때문 G20에 참석하는 정상 가운데 가장 늦게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주요국 정상은 기자회견 한 번 하는 데 TF를 구성하기도 한다”면서 “이번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만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정상회의에 운항하는 특별항공기 규모는 정부대표단 40~50기, 최고경영자(CEO) 10~20기 등 최대 70대가량이 될 전망이다.

대부분 인천국제공항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만큼 정부는 계류장 할당 문제 등을 예전부터 논의하는 등 손님맞이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왔다.

G20 회원국 및 초청국·국제기구 가운데 가장 먼저 예정된 양자회담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다. G20 의제로서 개발도상국의 균형발전이나 범세계적 관심사인 기후변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같은 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와 정상 회담이 예정돼 있다.

G20 정상회의의 바로 전날인 11일은 청와대에서 영국(데이비드 카메론 총리)과 독일(앙겔라 메르켈 총리), 미국(바라 오바마 대통령), 중국(후진타오 주석), 브라질(플라 다 시우바 대통령) 등의 순으로 회담 및 오찬,

기자회견 일정이 빼곡히 들어차 있어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날이다.

정상회의 당일인 12일 오후에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 회담이 열려 이 대통령은 그야말로 릴레이 양자회담을 받게 됐다.

한미 정상회담 하나만 준비해도 보통 엄청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양자회담이 줄지어 있어 그야말로 총력전을 펴야 할 상황이다.

한편, G20 회원국 가운데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9개국이, 그의 초청국에서는 2개 국가가 또 13~14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인 만큼 서울회의 종료후 또다시 회동하게 된다.

/연합뉴스

“그릇된 촌지 관행 뿌리 뽑겠다”

취임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8일 취임했다. 광주 교육사에서 첫 직선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인 그에게 맡겨진 과제는 만만치 않다. 그는 광주 외고설립 논란을 비롯해 무상교육 추진 등 각종 교육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장 교육감은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광주 교육계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그릇된 허례허식으로 인해 ‘도덕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 관행, 부적절한 절차, 차별을 부추기는 편가르기, 시민의 눈높이와 다른 행정시스템을 고쳐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장 교육감과 일문일답.



광주교육사 첫 직선제·전교조 출신

외고설립 논란·무상교육 등 현안 과제

-전교조 교사에서 교육감이 됐다.
▲평교사 28년, 교육위원 8년을 지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가족, 시민사회와 끊임없는 소통과 화합으로 광주교육 정책을 풀어나가겠다.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당당하고 소신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교육비리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
▲대표적 교육비리인 ‘촌지’를 없애겠다.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교사는 관리자나 행정 공무원에게 관행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그릇된 촌지 관행을 없애겠다.
-무상급식이 다소 차질이 있는데.
▲내년부터 중학생까지 하려던 공약을 실천하지 못해 유감스럽다. 교육청 예산에 너무 부담이 되고, 예산을 분담해야 할 광주시 예산 편성도 촉박했다.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단계별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
-공약인 광주형 혁신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나.
▲복지국가의 교육환경, 즉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 배움이 있는 교실’이다. 우리들의 가슴속에 있는 학교상을 구현하는 현장이다. 학급당 학생수 25~30명, 암기식 교육을 탈피한 토론,토의 체험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광주형 혁신학교를 새 모델로 삼겠다. 내년에 초등과 중학교 각 2개교 등 총 4곳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계고가 침체돼 있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계고에 대한 진학으로 변질하고 학생의 적성, 특기와는 무관한 직업선택으로 취업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다. 취업중심의 진로교육 강화와 취업지원센터 구축,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전문계고 복지지원 확대 등을 하겠다. 취업지원센터 구축, 교실 및 실험실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생각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학생인권위원회, 인권상담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등을 정비해 조례 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체벌금지, 강제

적 보충자율학습 금지, 우열반 편성 금지, 단계적 두발자유화 등을 담도록 하겠다.
-아간자율학습 실시 등은.
▲강제적 아간자율학습 실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교장 재량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생 건강과 능률 면에서 어느 쪽이 좋은지 교장들과 충분히 토론 하겠다.
-자율형 공·사립고는 교육감의 평준화 교육과 대치된다.
▲추가 지정은 없다. 운영 중인 곳도 전환 목적에 맞지 않는 대입 중심의 과잉적 문제가 드러나면 지정을 취소하겠다. 고교평준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목고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다.

“자율형 고교 추가지정은 없다

고교평준화 원칙 유지해 갈 것”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교육청 뿐만 아니라 시청 등 지자체, 학원연합회 등의 사교육 단체, 교원, 학부모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 방과후 학교 공익재단을 설립해 양질의 강사를 학교에 배치, 활용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공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나가겠다.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정경교육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 일부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 아닌 시민의 뜻과 의사가 반영된 모두가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을 만들어 교육이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광주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 거침없는 비판을 부탁 드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석방된 삼호드림호

11일 오후 오만 도착

합동참모본부의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퇴치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가 삼호드림호를 인수해 오만의 살라라항으로 이동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봉우 합참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해부대의 왕건함이 지난 7일 00시08분(한국시간)에 소말리아 호비항 공해상에서 삼호드림호를 인수인계했고, 당시 검문검색팀이 삼호드림호에 들어가 안전조치를 하고 의료팀이 의료체계를 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현재 삼호드림호는 소말리아 소코트라섬 남방 500km 해상에서 순항 중”이라며 “11일 오후가 되면 오만의 살라라항에 도착할 것이며 이후에는 선사측의 운항요원이 배를 인수해 목적지로 가져가고 선원들은 항공기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미FTA 최종 담판

김중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중로구 도림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점 현안 해결을 위한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FIFA회장에 월드컵 유치지원 당부

청와대 초청해 만찬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오후 방한 중인 조셉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접견하고 만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환담과 만찬을 통해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유치하려는 우리나라 국민의 열망과 의지를 전하고, 한국이 대회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접견 직후 만찬에 앞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스포츠를 통한 평화증진’이라는 월드컵의 이상을 실현할 책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유일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면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스포츠를 통한 평화 증진이라는 큰 이상을 실현할 책임국이 한국이라

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블래터 회장은 “누군가 ‘한국이 2022년 월드컵을 잘 치를 수 있을까’하고 묻는다면 당연히 ‘100% 잘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유치(준비)가 너무나도 잘 이뤄지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블래터 회장에 체육부 문 최고 훈장인 청룡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예약 서비스번호 41-0187289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6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먹어야 해결된다. 여성탈모, 무모, 이제 고민 끝!

여성전용 먹는 탈모제품의 특징

그동안 남모르게 고민해오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어 화제이다. 여성의 탈모는 원인은 모낭의 영양결핍이다. 남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위축이다. 원인이 다르니 제품도 달라야겠지요? 모근에 영양공급이 빠르고 강아서 해결될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먹는 방법입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져서 빠움에 체가 풍성해진다.

(통산판매고용 제9-5301호)

대히트 오래~오래~ 신상품 룽~링

남자의 발기능력은 자기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소하고 빠르고, 힘이 없고, 남성의 3대 고민은 오래~오래~ 룽~링으로 개선하자. 자동으로 흔들려 주고 떨어주며 룽링은 소프트하고 무게감이 없고 반영구적이며 위생적으로 탁월하여 여성으로부터도 호감을 받습니다. 생노병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본 제품은 의료기가 아닙니다

02-2068-4142 010-3518-8995
02-2068-4143 010-3611-8272

생각보다 좋은 비누 평미인

평미인은 (사단) 아세아태평양 자연 의과학 연구재단에서 제조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 몸 속 70% 물과 외부에서 씻는 물을 동조시켜 피부통로를 열리게 하여 몸속의 필요없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주요성분**

- 특수 숙성한 식물성 유지
- 살구씨 오일 및 분말
- 100% 천연향 로즈마리
- 천연신소재 HJ-1.2
- 글리세린

***사용범위**

- 모든 환자의 전신 목욕
- 유아목욕, 노인 밤새 제거
-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 잦은 화장을 하는 여성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 환자를 많이 다루는 사람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무좀, 습진, 비염)
-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

비누 사용시 유의사항

- 5분간 2회 이상 비누 맛사지
- 보관시 다른 비누와 따로 보관
- 처음사용시 5분 2회 손 * 발 맛사지 후 사용

◆광주·전남·북 판매점 모집◆
상담문의 ☎ 010-3231-3665